「제13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가 결과

2016. 5.

통계청

기 획 조 정 관
국제협력담당관실

목 차

Ⅰ. 참가 개요 ····· 1

Ⅱ. 본회의 일정 ····· 2

Ⅲ. 주요활동

1. 본회의 참가 ····· 3

2. 국제통계협력 활동 ····· 10

3. 관찰 및 평가 ····· 11

Ⅳ. 기타 참고자료

1. 주요 참가 사진 ····· 12

2. 주요 면담 인사 ····· 13

[별첨] 제13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의제 요약

I 참가 개요

1. 회의명: 제13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The 13th Meeting of the 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

2. 회의장소 및 기간

- 회의장소 : 프랑스 파리 OECD본부
- 회의기간: '16. 4. 25.(월) - 4. 26.(화)

3. 대표단 (8명)

- 단 장: **조창상 기획조정관**
- 단 원: (통계청) 성기도 국제협력담당관, 김신호 ILO 파견관, 서경숙 서기관, 진유강 주무관
  (한국은행) 신승철 국민소득총괄팀장, (OECD 대표부) 김태정 주재관

4. 주요 일정

- OECD 통계정책위원회 본회의 참가 (4.25. ~ 26.)
- 유로스탯, 덴마크, 몽골 등 주요 국가 대표단과 국제협력 교류 강화 및 공동사업 등 논의 (4.25. ~ 26.)
- 한-UNECE 공조 국제회의 개최 관련 UNECE 사무국 면담 (4. 26.)

5. 주요 활동 및 성과

- 통계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주요 어젠다를 파악하여 다양한 국외 선진사례 습득 및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청의 신규 통계수요 발굴 및 개선 등에 반영
-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서 아국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여 국제통계사회에서 우리청의 리더십 제고
-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기술 벤치마킹이 필요한 주요 국가 기관장과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 협력 활동 강화

Ⅱ 본회의 일정

4. 25. (월)	
10:00 - 10:10 (10분)	1. 개 회 (Introduction) ▪ 환영사(의장) 및 Draft Agenda 승인
10:10 - 10:40 (30분)	2. SDGs 이행 및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OECD 전략
10:40 - 11:10 (30분)	3. OECD 통계국장 보고 ▪ 2015-2016년도 사업 프로그램 이행 보고 ▪ 2016 각료이사회 주요 이슈
11:10 - 12:00 (50분)	4. 2017-2018 CSSP 업무 및 예산(안)
12:00 - 13:00 (60분)	5. 이주통계(migration statistics)
13:00 - 14:30 (90분)	*Lunch Break*
14:30 - 15:15 (45분)	6. 생산성 및 불평등 관련 이슈
15:15 - 16:15 (60분)	6.a. GDP 및 경제의 디지털화
16:15 - 16:30 (15분)	*Coffee Break*
16:30 - 17:30 (60분)	6.b. 건강 불평등
4. 26. (화)	
09:30 - 10:15 (45분)	7. SEEA 중심틀 이행 및 녹색성장 지표 업데이트
10:15 - 11:00 (45분)	8. Land data에 대한 정책적 요구 - NSO의 역할
11:00 - 11:15 (15분)	*Coffee Break*
11:15 - 12:00 (45분)	9. Good Statistical Practice 권고 이행
12:00 - 12:30 (30분)	10. [Confidential] 통계정책위원회(CSSP) 글로벌 관계 전략 2017-2018
12:30 - 14:30 (60분)	*Lunch break*
14:30 - 15:30 (60분)	11. Trust 측정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15:30 - 16:00 (30분)	12. 신규 센서스에 대한 칠레통계청 보고
16:00 - 16:15 (15분)	*Coffee Break*
16:15 - 17:00 (45분)	13. 과학 및 혁신 측정
17:00 - 17:30 (30분)	14. 정보제공 의제 (13.a) 통계정책위원회 working Parties 업데이트 (13.b) OECD 통계적 품질 리뷰 (13.c) 기타사항

III 주 요 활 동

1. 본회의 참가

※ 의 장(Chairperson): Mr. Konrad Pesendorfer (오스트리아 통계청장)

❍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OECD 전략]** 위원회는 향후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슈가 OECD 사업과 긴밀히 연계됨에 따라, SDG 이행 지원을 위해 작성된 OECD의 행동계획(Action Plan) 내용을 검토함

- 동 행동계획은 분야별 전문성과 선진사례, 기준 제공 등 OECD의 선도적 역할과 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 활동은 ▲ OECD 사업에 SDG 프레임워크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 OECD가 보유한 상당량의 데이터를 SDG 진전도 평가의 증거기반(evidence-based) 자료로 활용하며 ▲ SDG와 연계된 국가별 정책수립 지원과 ▲ 유엔 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SDG 이행에 기여하는 것임

- 영국은 SDGs가 OECD의 주요 활동에 포함되는 방향설정(mainstreaming)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국가통계청(NSO)의 역량강화, 각국 정부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 기업 등 민간과의 폭넓은 파트너십, data literacy를 위한 기술 구축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 멕시코는 한국만이 저개발국 상태에서 벗어난 유일한 수혜국임을 사례로 들며, 그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등에서 추진한 원조가 응집력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OECD가 단일 집중화된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을 주장함

- 덴마크는 표준화를 통한 비교가능성 확보와 데이터소스에서의 세분화 이슈를 고려해야 함을 언급함

❍ **[CSSP 2017~18년 예산 및 사업 프로그램(PWB)]** 위원회는 12개 사업 분야 및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회원국의 우선순위 의견수렴 결과와 사무국의 기존 사업 성과 등을 반영한 "2017~18년 사업 및 예산안(PWB)"을 보고받고, 향후 업무수행 방향을 논의함

- 회원국들이 국민계정, 무역 및 세계화 통계, 가구의 소득·소비·부의 분배, 녹색성장 및 SEEA 지표 사업에는 강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노동 및 성별 통계, 거시동향지표 및 경기선행지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나 사업 확대는 지양하기로 함

- 신규 프로젝트 중에서는 '지식기반 자산 및 다요소생산성 측정', '소득, 소비, 부에 대한 micro-matching', '토지 및 주거자산 측정' 지지도가 높게 나와 '17년부터 micro-matching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 등은 한국*을 포함하여 동 사업에 높은 지지를 표명한 17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경제통계기획과)' 사업에 '상(high)', '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한국은행)'에 '중(medium)으로 지지 표명('16.2월 의견조회 시)

- '웰빙의 주요차원에 대한 결정요인 프로젝트'는 필요한 예산규모에 비해 지지도가 낮아, 향후 2년간 사업에서 제외하고, 대신 '경제의 디지털화' 사업을 신규로 포함함

❍ **[이주통계]** 위원회는 최근 난민 위기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주 및 통합정책을 뒷받침할 OECD의 이주통계 사업을 검토하고, 이주동향의 정확한 포착과 미래변화의 성공적 예측 방안을 논의함

- 주요 내용은 ▲ 이주정보시스템(SOPEMI)의 포함 국가 확대와 ▲ 난민, 망명신청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 고숙련 이주자들과 국제학생 유인 능력에 대한 평가방법론 개발, ▲ 이주자 및 자녀들의 지역내 통합 조사를 위한 지표 생산, ▲ 이주통계에 대한 정기적 국제포럼 개최 등임

- 조창상 대표단장은 OECD가 진행하고 있거나 제안한 이주통계 사업들에 적극 동의하면서, 현재 플로우(flow) 중심의 이주정보시스템에 각 국 이민자의 국적별 현황(stock)을 추가로 조사하여 국가별 이주 흐름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해외 이주자 총량을 상호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함

- 노르웨이는 이민자에 대한 예측이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민자 통합에 대한 지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호주는 최근 센서스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이민자 및 이민 가족의 고용 및 소득 현황을 파악한 사례를 이주통계 작성의 혁신적 분석 사례로 소개함

- 네덜란드는 일시적(temporary) 이주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데이터갭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생산을 위한 협력은 중요하나 이것이 국가통계기관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 멕시코는 이민자의 출신국 뿐만 아니라 경유국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함을 제안하고, 헝가리 역시 주요 경유국으로서 일시적 이민자의 흐름에 대해 예측 및 공유가 필요함을 언급함

- UNECE는 이주 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금년 5월에 개최되는 글로벌포럼을 소개하고, 이민과 같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 국제적 활동들의 조정(coordination)도 고려할 것을 당부함

❍ **[생산성 및 불평등]** 위원회는 오는 6월 1~2일 개최되는 OECD 각료 이사회에 보고 예정인 “생산성 및 불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소득, 부, 웰빙의 불평등 유발요인, 생산성과 불평등 간의 악순환 관계 및 개인, 기업, 지역, 공공 거버넌스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개발의 필요성 등을 다룬 연구 내용을 공유함

- 노르웨이는 생산성 증가의 둔화는 자원의 변화 및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것과도 관계될 수 있으며, 기술숙련도가 낮은 노동자들의 이민 증가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음을 제언함

- 덴마크는 동 보고서가 통화정책이나 금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조세이전정책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IMF는 프론티어기업을 혁신의 측면에서만 보면 놓치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며, 신진 기업에 대한 투자, 자본 접근성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을 지적하는 한편, 유로스탯은 사회경제적 영향과 아울러 환경적 요인도 고려하되, 특히 녹색성장 및 순환경제 측면에서 에너지효율 등도 생산성 효율로 볼 수 있음을 언급함

❍ **[GDP 및 경제 디지털화]**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 우버택시, 이베이, P2P 대출 등 디지털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GDP 추계 시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한 접근방식 및 필요성을 논의함

*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기업체가 운영하는 웹기반 중개서비스(web-based intermediaries)에 의한 소비자간 거래(peer-to-peer transaction)를 의미

- 우리 대표단장은 최근 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통계 정책적 대응을 다루고 있는 금번 의제의 중요성에 지지를 표시하고, 디지털 경제 측정의 구체적 지침 도출을 위한 국가별 설문조사 계획에 동의함

  · 다만, 국가들마다 법적·제도적 및 기초자료 여건이 상이하므로 효용성 제고를 위해 국가별 특이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항목 포함을 제안함

- 네덜란드도 디지털경제의 측정을 위해서는 각국의 관행과 현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헝가리는 국민계정을 수정 및 이행하는데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디지털 경제를 국민계정에 반영하는 것은 신중히 추진해야 함을 지적함

❍ **[건강 불평등]** 위원회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 차원에서 OECD가 작성한 각 국의 '교육수준별 기대수명의 차이' 결과를 보고받고, 사망 불평등 측정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함

- 조창상 대표단장은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계층별 사망불평등 측정의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변수 중 '교육수준'의 객관성과 중요도에 공감하면서, 다만, 한국과 같이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는 교육수준별 기대수명 통계의 유효성이 높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향후 국제비교 시 반영되기를 제언함

  ※ 한국은 '14년 고등학교 졸업률이 95%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며, 2050년 생산가능인구의 2/3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교육-수명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교육수준에 따른 수명 분석이 일부 국가에서만 유효한 것일 수 있으며, 오히려 의료수준 및 보험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함

- 독일은 교육수준과 수명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한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수명 조사를 실시, 긍정적인 관계를 파악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성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하여 유사 조사를 확대할 예정임

- 스웨덴은 교육수준이 출생지의 차이(본국/외국)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및 수명 등은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는 변수로, 조사주기를 5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함

- 덴마크는 수명을 부모의 교육수준과의 함수관계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헝가리는 구공산주의국가의 경우 교육수준보다 남녀 간의 수명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므로, 교육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슈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함

❍ **[녹색성장 전략 및 환경경제계정(SEEA)]** 위원회는 산업별 대기배출계정 및 광물·에너지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지침서 개발 등 그간 SEEA 테스크팀의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함

- 우리 대표단장은 광물·에너지자원 데이터베이스의 국가범위 확대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SEEA 계정의 작성 방식이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각 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세부 지침서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 네덜란드 등이 이에 같은 의견을 표명함

- 유로스탯은 향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 흐름(flow) 계정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경제분석 시 환경 데이터의 활용 증대 및 환경계정 이용 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영국은 각국의 환경계정 작성에 대한 경험 공유의 중요성 및 특히 이를 위한 정책입안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함

❍ **[모범통계실무 권고(안)]** 사무국은 '15년 채택한 모범통계실무(Good Statistical Practice) 권고안의 회원국 이행을 위해 (1) 간소한 형식의 자체평가 (2) 증거기반 자체평가 (3) 피평가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발적 동료평가(peer review), 세 가지 평가방식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사표, 지침, 웹페이지 등 이행도구(toolkit)와 추진일정을 보고함

- 캐나다, 호주는 동료평가 시 예상되는 비용, 자체평가와의 차이 등 관련 사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회원국에게 회람되기를 요청함

- '16년 상반기까지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일본은 분산형 통계시스템으로, 평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 확보를 건의함

- OECD 사무국은 두 달 이내에 국가별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것이며, 1년 반 기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2018년 평가결과 초안을 OECD 이사회(Council)에 제출할 예정임

❍ **[CSSP의 글로벌관계전략]** OECD 사무국은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글로벌 관계전략(Global Relations Strategy)의 현행화 내용을 회원국에 보고하였으며, 최근 물가통계, 국민계정 등의 생산이 중단된 아르헨티나를 잠재적 invitee로 초청하여 통계 방법론 등을 전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이에 대해 미국 등이 지지를 표명함

- 또한, 기존 participants 자격으로 참여해온 브라질, 루마니아, 남아공, 루마니아 등을 Associate 지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관련 작업을 추진하기로 함

❍ **[공공기관 신뢰측정]** 공공기관 신뢰성의 개념, 신뢰성의 영향 및 요인 등 동 분야 통계수요의 증가에 반해 공급측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여론조사, 전문가의견 등 비공식통계에 기반하고 있어, 사무국은 관련 자문그룹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주요내용을 소개함

- 특히, OECD는 신뢰가 한 국가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이자 거버넌스의 초석임을 언급하며, 정부 신뢰가 낮아지면 정책 역량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신뢰측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함

- 루마니아, 일본 등은 국가기관 및 제도에 관한 신뢰 조사는 조사 시점과 조사기관에 따라 매우 다른 조사결과가 도출되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

- 헝가리는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이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 가이드라인이 각국의 신뢰조사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을 피력함

2. 국제통계협력 활동

(1) 네덜란드 통계청 대표단 협력회의

❍ **일 시:** '16. 4. 25. (월)

❍ **장 소:** OECD 컨퍼런스센터 Room 1

❍ **주요 논의사항**

- '11년 양 기관간 MOU 체결 이후 매년 심화되고 있는 통계협력 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5차 청장급 양자협력회의('16.6월, 대전)의 주요 의제는 '빅데이터, Open data 등 신규 데이터소스 활용과 관련한 공식통계의 혁신(Innovation)'으로 잠정 합의함

- 아울러, 네덜란드 통계청이 상기 주제와 관련한 한-네덜란드 공조 프로젝트(joint project) 수행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대표단장은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고, 기존 MOU에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오는 6월 양자회의 시, 갱신 체결하기로 함

(2)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사무국과 협력회의

❍ **일 시:** '16. 4. 26. (화)

❍ **장 소:** OECD 컨퍼런스센터 Room 1

❍ **주요 논의사항**

- 통계청과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공조하여 '17년도에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공식통계의 현대화를 위한 고위급(HLG) 세미나"와 관련하여 개최 시기 및 참석 규모 등을 협의함

- 회원국의 통계수장(Chief Statistician)들이 참가할 것을 감안하여, 시기는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3월 초)와 제14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6월 중순) 사이의 '5월 초'로 잠정 결정하고, 규모는 50~60명 내외로 합의함

- 동 회의는 초청자만 참석하는 Closed meeting으로 진행될 예정

(3) 기타 국제협력활동

❍ **일 시**: ‘16. 4. 25.~26.

❍ **장 소**: OECD 컨퍼런스센터 Room 1

❍ **(몽골 통계청)** 금번 회의 시 초청(invitee) 국가로 참석한 몽골 통계청장이 최근 몽골 통계청과 등록청의 합병과 관련, 우리청에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경험 전수를 요청함에 따라, 금년 5월 중 몽골 연수단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함

❍ **(덴마크 통계청)** 덴마크 통계청장과 행정자료 및 빅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소스 활용에 관한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아가기로 협의함

3. 관찰 및 평가

❍ OECD 통계정책위원회(CSSP)는 회원국의 통계기관장 및 국제기구 통계 수장들이 참가하여 글로벌이슈, 세계 통계시스템의 추진 방향, 정책 대응, 의제별 실천방안 수립 및 이행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임

❍ 최근 OECD 통계정책위원회의 의제가 통계를 넘어 관련 정책적 이슈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분산형 통계시스템 하에서는 향후 **의제 대응에 있어 관련 정책부처와의 보다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또한, OECD의 다양한 정책 의제와 관련하여 **국가별 비교분석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공된 우리나라의 통계수치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Ⅳ 기타 참고자료

1. 주요 활동 사진

【본회의에서 발언 중인 대표단장】

【 Eurostat 통계처장 업무협의 】

【 유럽경제위원회(UNECE) 업무협의 】

【 덴마크 통계청 부청장 업무협의 】

【 네덜란드 통계청 업무협의 】

【 회의장 전경 】

2. 주요 면담인사

① OECD 통계국장

□ 성　명 : Ms. Martine DURAND (마틴 듀란)

□ 직　함 : Director / Statistics Directorate

□ 학　력

○ 파리4대학 졸업 (수학 전공)

○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경제학 전공)

□ 주요 경력

○ '10. 2 ~ 현재　OECD 통계국장

○ '01 ~ '10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

○ '97　OECD 경제국장 자문관

○ '91　OECD 경제국 선임경제학자

○ '83　OECD 경제국 입사

□ 그간의 협력사항

○ '15　아·태지역 주관적 웰빙측정 워크숍 공동개최
(Asia-Pacific Workshop on Subjective Well-being: Measurement and Policy Use)

○ '14　SDMX 전문가 회의 공동개최
(2014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

○ '09　제3차 OECD 세계포럼 공동개최
(The 3rd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② 유로스탯 통계처장

□ 성　명 : Mr. Walter Radermacher (월터 라데마허)

□ 나　이 : 64세 (1952년 生)

□ 학　력

○ 기업경제 전공

□ 주요 경력

○ ‘08 ~ 현재　　현 EUROSTAT 통계처장

○ ’06. 12 ~‘08　전 독일 연방통계청장

○ ’03 ~ ‘06　　전 독일 연방통계청 부청장

□ 참고사항

○ 한국을 HLG 맴버로 초대, 2013년 ISI대회 시, 세션 구성을 의뢰하는 등 한국에 매우 호의적

③ 몽골 통계청장

□ 성　명 : S. Mendsaikhan (멘사이칸)

□ 나　이 : 56세 (1960년 生)

□ 학　력

○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립 대학 수리학 학사(1977-1982)

○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립 대학 수리학 석사(1988-1989)

□ 주요 경력

○ 몽골 자연 환경 국가 협회 대표 (2006.8.~2009.1.)

○ 몽골 자원과 에너지부 부국장(2004~2006)

○ “Altan gadas”기관 집행 이사 (2002~2004)

○ 몽골 민주당 부대표 (2000~2002)

○ 몽골 환경부 장관 (1998~2000)

○ 몽골 의회 대변인 자문관 (1996.7.~1998)

○ 몽골 “This day” LLC 국장 (1993.8.~1996)

○ 몽골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1990~1993)

④ 주OECD 대표부 대사

□ **성 명** : 윤 종 원 (尹 琮 源)

□ **나 이** : 56세 (1960년 生)

□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84년)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86년)

○ 미국 UCLA대 경제학 박사('94년)

□ **주요 경력**

○ '15.10 ~ 현재 주OECD대표부 대사

○ '12 ~ '15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 '11 ~ '12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 '09 ~ '11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06 ~ '09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 '05 ~ '06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장

○ '03 ~ '05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 '02 ~ '03 재정경제부 산업정책과장

○ '01 ~ '02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과장, 재정정책과장

○ '83 행정고시 27회